

중부 물폭탄·남부 가뭄 폭염... 극과 극 '한 나라 두 날씨'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고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잠수교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연일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9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산책 중인 시민들이 쿨링포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서울 470mm 폭우... 한 달 내릴 비의 양 이틀 동안 쏟아져
광주·전남 가뭄 경보... 평균 저수율 49%에 물부족 극심
폭염·열대야에 온열질환자 106명... "야외활동 자제" 호소

"중부는 물폭탄, 남부는 가뭄 속 찜통 더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극심한 가뭄 속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한 나라 두 날씨'가 이어지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부지방은 유례없는 물 폭탄=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에는 469.5mm 비가 쏟아지는 등 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내렸다. 서울지역의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인 414.4mm 보다 많은 양의 비가 이틀 동안 쏟아진 셈이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내륙 및 산지, 충청 북부 등에는 8일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0일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북부·경북북서내륙에 100~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고, 당분간 중부지방과 전북·경북에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 북부에 많은 비가 왔다면, 앞으로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강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중부지방에 유례없는 물 폭탄이 쏟아진 데는 한반도 중부지방에 걸쳐있는 정체전선이 원

인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정체전선은 한랭전선인 북쪽 티베트 고기압과 고온다습한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졌다"면서 "이 두 기압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동서쪽 길이는 길고, 남북쪽 폭은 좁은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구름대 폭이 좁아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50~80mm 이상일 때도 있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지방 가뭄 속 폭염 지속=중부지방의 물 폭탄과는 달리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은 가뭄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는 9일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전남의 경우 최근 6개월 간 누적 강수량은 506.8mm로, 평년 강수량(802mm)의 63.5%에 그치고 있다. 평균 저수율 또한 전남은 49.4%로 평년(63.6%)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섬진강댐의 저수량도 예년 547.0㎥에 비해 올해는 301.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도 지속되면서 온열환자 급증과 함께 일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들도 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중이다. 특히 올 여름 폭염(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빨리 시작된다. 열대야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빨리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분석 결과 올해 광주 지역의 폭염은 지난 6월 3일 첫 발생했고, 열대야(일 최저기온 25도 이상)도 지난 6월 26일 처음 발생했다.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에 비해 3주 이상 빨리 찾아온 것이다.
올해 폭염과 열대야는 첫 발생후, 2.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빈도조차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기온이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반복하는 '이상한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1일과 12일 오전, 16일과 17일에 광주·전남 지역은 남하한 정체전선의 끝 부분이 걸치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강수량은 5~30mm 수준이며, 낮 최고기온은 30~31도를 유지하는 등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보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폭염 속 온열환자도 급증=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106명(전남91명·광주15명)이다. 아직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온열질환자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에는 폭염 이후 극심한 피로나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온열질환 의심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전문의는 "주간에 야외활동을 한 후유증이나, 땀방기에서 하루 종일 일해 피곤한 경우, 열대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경우 등 무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노인들은 주간에 조금만 움직여도 식은 땀을 흘리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는 경우도 상당수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정치인 사면 최소화... MB·김경수 제외될 듯

법무부,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심 끝에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 넣기로 사면을 한다면 오히려 국정동력 확보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정치인도 이번엔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도어스 테입)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MB 사면 쪽에 무게를 뒀으나 지난달 22일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면서라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병기,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 일부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가 이날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경선 관심 집중 ▶3면
- 광주변호사회 '경찰 평가' 시행한다 ▶6면
- KIA 박찬호 "예쁜 딸 날으니 책임감 커져" ▶18면



박찬호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처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신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